

어머니,

어머니!

젖을 빨려 이마음을 달래여주소.

이밤이 작고 설혀 지나이다.

이아이는 턱에 수염자리잡히도록

무엇을 먹고 잘았나이까?

오날도 흰주먹이

입에 그대로 물려있나이다.

어머니

부서진 납인형도 슬혀진지

벌써 오래니다

철비가 후누주군이 나리는 이밤을

주먹이나 빨면서 새우릿가?

어머니! 그어진손으로

이울음을 달래여주소.

一九三八、五、二八、

어머니

어머니!

젖을 빨려 이 마음을 달래어 주소.

이 밤이 자꾸 서러워지나이다.

이 아이는 턱에 수염자리 잡히도록

무엇을 먹고 자랐나이까?

오늘도 흰 주먹이

입에 그대로 물려 있나이다.

어머니

부서진 납인형도 슬혀진 지

벌써 오래니다.

철비가 후누주군이 나리는 이 밤을

주먹이나 빨면서 새우리카?

어머니! 그 어진 손으로

이 울음을 달래어 주소.

1938. 5. 28.